

케냐와 잠비아의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향 분석: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충식 ■ 중앙대학교**

임시정 ■ 고려대학교***

김영완 ■ 서강대학교****

홍혜란 ■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

〈국문요약〉

코로나19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켰고, 가정 내에도 불화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발도상국의 취약 가정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심리적 영향을 파악하고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굿네이버스 케냐와 굿네이버스 잠비아의 지역개발사업장을 선택하여, 주요정보제공자면접, 초점집단면접, 843가구와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케냐가 42%, 잠비아가 30% 정도 감소하였으며, 양국 모두 가정의 결식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 가정 가장의 우울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 이 논문은 2021년도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의 "코로나19의 심리적·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케냐와 잠비아 아동을 중심으로"의 일부로 수행된 연구이며, 이 연구에는 저자들과 연구보조원 경희대학교 김효정, 서울대학교 손채원이 참여하였음.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굿네이버스 이일하 이사장,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 최민호 사무총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신 굿네이버스 케냐의 허남운 대표, 전선율 PM, 굿네이버스 잠비아의 이재웅 대표를 비롯한 참여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5117).

** 주저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부교수 (E-mail: cmoon@cau.ac.kr)

*** 공저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E-mail: sijeonglim@korea.ac.kr)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youngwan@sogang.ac.kr)

***** 공저자.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 과장 (E-mail: hrhong@goodneighbors.org)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상태인 가장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코로나19,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 아동결연 프로그램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억4천2백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백9십3만 명에 육박하였다.¹⁾ 지역별로 보면 미주의 확진자가 9천 2백만 명, 유럽 지역 확진자는 7천 4백만 명, 동남아시아 지역은 4천 3백만 명, 중동 천 6백만 명, 아프리카 6백 십만 명으로 계상된다.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각 지역의 사망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자연 억제에 어려워지면서, 후천적 면역을 갖추게 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 후 많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의 생산 및 공급 분야에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고, 백신 민족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백신의 불균등한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공평한 백신의 접종을 위한 정책 권고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인 굿네이버스가 진행한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케냐와 잠비아를 연구의 주요 대상국으로 삼아 각 국가에서 굿네이버스 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인 지역개발사업장(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이하 CDP)과 비대상마을(이하 Non-CDP)을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10/25)

비교하였다. 총 843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주요정보제공자 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취약 가정에 대한 사회경제적·심리적 영향과 굿네이버스 개발협력사업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식사 횟수가 감소하고 결식 횟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의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과 이동결연 프로그램은 실직상태 가장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개발사업과 이동결연 프로그램 같은 주요 개발협력사업은 가정과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다음 장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영향을 기존의 연구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현지조사를 포함한 연구 방법과 굿네이버스의 개발협력사업을 설명하며 네 번째 장에서는 주요정보제공자면접, 초점집단면접,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OECD는 2020년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의 측면과 소비 지출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OECD 2020a). 생산 활동의 측면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사업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이들 생산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40%에 달하였다. 이들 분야는 국가·지역 간 이동 제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한 사업장 축소 및 폐쇄 조치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와 고용 부문에서의 감축을 경험하였다. 소비 분야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의 목적별 소비 지출 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따른 소비 지출 부문의 감소 폭을 살펴보면, 의류나 잡화, 가정용품, 운송 서비스 및 단체 여행에 대한 소비 감소 폭은 100%에 이르렀고, 엔

터테인먼트와 문화, 음식점과 숙박의 경우 75%의 소비 감소 폭이 나타났다. 소비 지출은 주요 국가들의 GDP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 지출이 감소함으로써 국가들의 실질 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 수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산업 전 분야에서 소비가 감축되었으며, 이것은 최대 60% 하락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Goolsbee et al. 2020).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소비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킨 결과 이러한 소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또다시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생산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2020년 세계 GDP의 1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여행업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송업 역시 전년 대비 44% 정도의 연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산업별 부문 중에서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급격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본국으로의 송금이 중단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ILO 2020a). 이는 다시 개발도상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자동차 제조업도 작업 중단과 작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중단과 실업률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ILO 2020b). 이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세계 무역량은 급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년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의 가정 경제는 위와 같은 거시 경제적 타격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코로나19가 9개 개발도상국 3만여 가정의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에거 외(Egger et al. 2021)에 따르면, 모든 표본 국가의 가정에서 2020년 3월 이후 소득 및 취업을 감소가 관찰되었고, 소득 감소율의 중간값은 68%에 달하였다. 코로나 19가 케냐와 우간다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칸시미 외(Kansiime et al. 2021) 또한 조사 대상 가정의 3분의 2가 소득 감소와 식량 부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정 경제 충격은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2. 코로나19의 취약 가정에 대한 심리적 영향

경제 활동의 위축과 소득의 감소 등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은 각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Dooley, Catalano and Wilson 1994; Dooley, Prause and Ham-Rowbottom 200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성인 가족 구성원의 실업이나 재정적 불안 상황이 심화되는 경우, 우울감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Van Bavel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제약 및 학교의 폐쇄는 가장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중된 육아와 돌봄, 그리고 홈스쿨링 요구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Jiao et al. 2020).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아버지의 32%와 어머니의 57%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Hamel and Salganicoff 2020). 보육 기관과 학교가 폐쇄되면서 부모들은 재택근무와 육아 및 홈스쿨링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많은 부모가 '탈진(burnout)'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Griffith 2020).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에 더욱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Roshgadol 2020), 취약 가정의 경우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교나 돌봄시설이 폐쇄되어 비대면 수업이나 가정돌봄으로 대체되는 경우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Griffith 2020).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한 가계(household) 수준의 경험적 연구는 대부분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국가의 취약 가정의 상황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 19가 개발도상국 가정에 미친 영향을 다룬 일부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 고용 등 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영향 뿐 아니라 심리적 영향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입(굿네이버스 개발협력사업)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국 선정

본 연구의 대상국으로는 케냐와 잠비아를 선택하였다. 케냐와 잠비아를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공중 보건 상황이 좋지 않으며, 심지어 코로나19 감염자수 또한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영향, 특히, 심리적 영향을 다룬 가계 수준의 경험적 연구 또한 선진국 및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부족하다.

둘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를 선정하여 대표적 사례 분석 (representative case study)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케냐의 명목상 일 인당 국내총생산은 1,816달러이며, 잠비아는 1,305달러이며, 양 국가의 국내총생산은 케냐가 9백 55억 달러, 잠비아가 2백 3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은 잠비아보다 케냐가 발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케냐와 잠비아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논의가 진행된 2020년 11월 기준,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05% 이상 국가는 케냐, 잠비아, 에티오피아 세 국가였다.²⁾

셋째, 굿네이버스 사업대상국 중 결연 아동 수가 많은 국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이미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케냐와 잠비아는 결연 아동이 각각 7,120명과 5,015명이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에티오피아의 경우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0.09%이며 절대적인 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나, 사업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굿네이버스의 개발협력사업과 코로나19

1) 아동결연 프로그램과 지역개발사업

아동결연 프로그램은 개발 NGO의 대표적인 아동 후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빈곤 지역 아동과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아동의 생존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다.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39개의 사업국에서 21만 2천여 명의 결연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연 아동은 가정방문 상담(분기별)과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영양지원, 학업 지원(학용품, 교재, 학비, 교복)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기존에 국제 아동 후원 프로그램이 주로 일대일 아동결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개발 지원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Van Eekelen 2013). 굿네이버스는 2008년부터 빈곤 국가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을들을 조사하여 선정한 뒤,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아동보호, 교육, 보건, 식수 위생, 소득증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굿네이버스 케냐와 잠비아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전략(Good Neighbors Global Response Plan against COVID-19)’을 수립했다. 이 대응 전략은 ‘최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기반 회복력 증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크게 세 단계 - 준비단계(1단계), 대응단계(2단계), 복구단계(3단계) -로 진행되며, 굿네이버스 케냐와 잠비아 또한 이에 따라 국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동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케냐는 별도의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여 결연 아동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확진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³⁾ 결연 아동 가정에 위생키트와 식료품을 지원하고, CDP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슈퍼마켓 바우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한 주민, 직업학교 졸

3) 굿네이버스 케냐는 1995년에 설립되어 6개 CDP(Mukuru, Korogocho, Dandora, Meguara, Ogembo, Bisil)에서 결연 아동 7,120명을 지원하며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0년 기준).

업생과 협력하여 면마스크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또한 24개 협력학교에 물탱크와 위생 물품 등을 지원하고, 케냐 보건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굿네이버스 잠비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폐쇄로 인해 기존 학교 중심의 결연 아동 지원을 마을 중심의 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하였다.⁴⁾ 결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정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생키트와 감염 예방 자료를 배포하였다. 특히 교육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학교 진학을 앞둔 고학년(7~9학년)을 중심으로 주요 교과목 교재가 저장된 SD카드와 라디오를 지원하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교육 방송을 송출하였다. 2020년 상반기 굿네이버스 케냐, 잠비아의 코로나19 긴급구호 지원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굿네이버스 케냐, 잠비아 코로나19 긴급 대응

	가정방문 및 상담	긴급 위생키트 지원 (가정용 물탱크, 마스크, 비누, 세제, 손소독제)	긴급 식량지원 (쌀, 옥수수 가루, 식용유, 콩, 고열량 비스킷)	코로나19 예방 교육
케냐	7,109명	32,334명	7,334명	10,190명
잠비아	5,001명	32,220명	17,720명	6,935명

3. 연구 대상 마을 선정

케냐와 잠비아를 연구 대상국으로 확정된 후 연구 대상이 될 CDP와 Non-CDP를 선정하였다. CDP는 이미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케냐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CDP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고려하여 CDP를 선정하였다. 잠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CDP가 농촌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의 CDP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굿네이버스 잠비아는 2012년에 설립되어 4개 CDP(Mapepe, Mpango, Chiwena, Shbuyunji)에서 결연 아동 5,015명을 지원하며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20년 기준).

케냐의 경우 도시 CDP는 Mukuru, Korogocho, Dandora CDP에서 연구 진행이 되었으며, 농촌 CDP로는 Meguara, Ogembo CDP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잠비아는 Chongwe District에 있는 Chansongo, Njamu, Chilikwela, Mwachilele, Masungaile, Mwale, Mwendwe, Mukwamba, Chinyengo, Mwashilumba, Musebo, Shanyama, Shiloto, Mapulanga, Mpemba, Chombwa CDP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CDP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Non-CDP 선정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마을을 선택하였다. 첫째, 비교 대상이 되는 CDP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마을을 선정하였다. 둘째, CDP와 근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선정하였다. 셋째, 비교 대상이 되는 CDP와 유사하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Non-CDP는 케냐는 Njiru District의 세 개 마을, Kamukunji District의 한 마을, Kasanari District의 한 마을, Rachuonyo South District의 15개 마을, Rachuonyo North District의 한 마을, Gucha District의 6개 마을, Etago District의 두 마을, Trans Mara West District의 13개 마을이다.⁵⁾ 잠비아에서는 Non-CDP로 CDP와 같이 Chongwe District에 속한 Musebo, Shanyama, Shiloto, Mapulanga, Mpemba, Chombwa 마을이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잠비아 Chongwe District의 인구수는 201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182,174명이며 매년 2.5%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국가별 CDP와 Non-CDP의 가구당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설문 조사

설문 조사 분석에서는 모집단(Population)의 성격에 따라서 표본추출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CDP와 Non-CDP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케냐의 인구는 5천 2백만 명이며 잠비아의 인구는 1천 7백만 명이다. 양국의 인구를 고려하여 신뢰 수준(Confidence level) 95%와 오차 한계(Margin of error) 5%를 고려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추정하면 각국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384명이다. 양국의 인구 차이는 있으나 최소 표본 수는 같은 것으로 계상된다. 결측치 및 오류

5) 케냐와 잠비아의 District 구분은 크기에 차이가 있다.

값을 고려하여 각국에서 400명씩, 총 800명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굿네이버스 케냐와 잠비아 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약 두 달간의 시간 동안 설문 조사원 교육과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지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지역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굿네이버스 직원과 설문조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케냐에서 443명, 잠비아에서 400명, 총 843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⁶⁾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성인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가구의 성인 응답자 표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지역개발사업(CDP)과 아동결연 프로그램(Sponsorship program)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조성을 목표로 교육, 보건, 식수, 소득증대 등 지역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개발전략이 수반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연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아동과 가정에 대한 교육, 건강, 위생 등의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본 설문에 응답한 전체 843가구 중 절반 정도인 443가구가 CDP에 포함되어 있으며, CDP에 포함된 가구 중 205가구가 아동결연 프로그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본 설문표본에는 CDP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동결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을 위해서 CDP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연프로그램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구를 CDP_Nonsponsor라는 더미 변수로, CDP와 결연프로그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가구를 CDP_Sponsor이라는 더미 변수로 각각 코딩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임으로 서열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이거나, 종속변수의 항목이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 모형을 사용해도 결과상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서열로짓모형의 경우 상호작용모형을 추정할 경우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지 않으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OLS를 사용하였다.⁷⁾

통제변수로는 각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및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Income), 실업 유무(Unemployment), 국가더미변수

6) 본 연구를 위해 취약 계층을 대표하는 표본 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취약 계층을 포함하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 수를 계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7) 서열로짓모형을 사용한 상호작용모형 효과 분석 결과는 제시된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Zambia), 농촌거주여부(Rural), 응답자의 나이(Age), 응답자의 성별(Gender), 결혼 여부(Married), 교육 정도(Education), 문해력 여부(Literacy) 등의 변수를 포함했다. 이 중 소득, 나이, 교육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미 변수로 구성되었다.⁸⁾

5. 주요정보제공자면접 및 초점집단면접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정보제공자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코로나 19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정보제공자면접은 굿네이버스 케냐 허남운 대표와 굿네이버스 잠비아 이재웅 대표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였다. 그 이후 굿네이버스 케냐와 굿네이버스 잠비아의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부의 대응과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케냐의 District Children's Officer인 Annisia Gatwiri와의 인터뷰가 2021년 4월 7일 온라인으로 한 시간가량 진행이 되었다. 또한, 2021년 4월 8일 이뤄진 잠비아의 공립 중급 학교 교장인 Fales Zulu Paipi와의 인터뷰를 통해 잠비아의 학교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의 초점집단면접은 굿네이버스 케냐와 잠비아의 주도하에 각각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CDP에 속한 마을에서 온 가장들이었으며 두 번째 집단은 Non-CDP에 속한 마을에서 온 가장들이었다. 케냐의 경우 추가로 도시와 농촌 지역을 나누어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에 미친 영향

우선 코로나19 이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기준)과 코로나19 이후(2021년 4월 기준)의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지출 관련 다양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⁹⁾ [그림 1]은 케냐와 잠비아의 각각 월 평균소득 변화를 보

8) 교육변수는 순서변수로 교육수준에 따라 5(중등교육 이상), 4(중등교육), 3(중등교육중퇴), 2(초등교육), 1(초등교육중퇴), 0(공교육 없음) 중 하나의 응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9) 코로나19 이전의 데이터의 경우, 사전 조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 이후와 비교하는 것

여준다. 케냐의 표본 마을들이 잠비아의 마을들보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오히려 케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 케냐의 월 평균소득은 약 91달러로 잠비아의 거의 세 배에 가까웠으나 코로나 이후 대략 42%가량 감소하여 약 52달러가 되었다. 잠비아의 월 평균소득 역시 코로나 이전 31달러에서 21달러로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빈곤층 가구의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인 해외 송금 소득도 케냐 4.2달러, 잠비아 3달러에서 각각 2.37달러(-44%), 1.99달러(-34%)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소득 변화와 유사하게 코로나로 인한 송금소득의 변화도 케냐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양국의 월평균 소득 변화



[그림 2] 양국의 월평균 송금소득 변화



소비 및 저축 등의 지출 관련 경제 활동 또한 소득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케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전과 후의 월평균 가구 소비는 62.2달러에서 39.4달러로 약 37% 감소하였고, 잠비아의 경우 24달러에서 18달러로 25% 감소하였다. 또한, [그림 4]는 월평균 저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케냐 응답자는 12.7달러에서 4.5달러로 저축 감소의 폭이 65%에 달하였다. 잠비아의 경우에도 7.1달러에서 3.3달러로 약 54%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코로나19로

이 이상적이나 본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후 분석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밝힌다. 다만, 굿네이버스에서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코로나19 이전 가정의 평균 소득과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본 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하여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소비와 저축 측면에서도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양국 월평균 소비변화



[그림 4] 양국 월평균 저축변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는 각 가구의 영양 공급 수준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아래 그림은 응답자의 영양 공급 상태에 대한 코로나19 전후의 추정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이전 하루 평균 2.7회 식사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식사 횟수는 2회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주당 결식 횟수는 1.7회에서 2.9회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케냐 응답자의 일일 식사 회수는 2.9회에서 1.9회, 잠비아의 경우에는 2.6회에서 2.2회로 감소하였으며[그림 5], 주당 결식 횟수는 각 국가에서 1.4에서 2.4, 2에서 3.4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5] 양국 일일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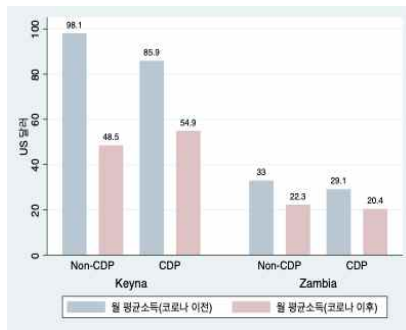
[그림 6] 양국 주당 결식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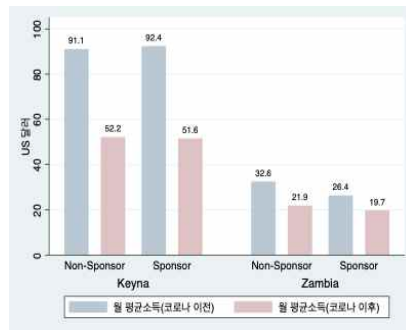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화는 현지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상대로 주요정보제공자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메커니즘은 상이하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동 제한과 물품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운송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는 일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케냐의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시근로직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잠비아 농촌 지역의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응답자의 경우, 농촌 지역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인 농작물의 시장 판매가 이동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양국 표본 가정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굿네이버스 수혜 여부는 큰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아래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CDP와 Non-CDP 모두 경제적인 충격을 경험했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CDP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결연 가정과 비결연 가정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사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양국 CDP와 소득



[그림 8] 양국 아동결연 프로그램과 소득



2. 코로나19가 가정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우울감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을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아주 심하게 경험, 4=많이 경험, 3=어느 정도 경험, 2=드물게 경험, 1=전혀 경험하지 않음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67% 정도가 상당히 많은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평균 3.41).

코로나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의 양상은 초점집단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장의 실직과 가구의 소득 감소, 그리고 학교 폐쇄에 따른 가정 내 불화가 복합적인 형태로 가정 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실직과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개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우울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폐쇄와 실직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의식주 해결과 육아 및 교육의 문제로 인하여 구성원 간의 충돌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 또한 심각함을 피력하고 있었다. 케냐에 거주하는 한 응답자는 4남 3녀를 둔 가정으로 1999년부터 케냐의 한 사파리에서 일해왔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현재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신의 부모님이 케냐의 작은 마을의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한 또 다른 응답자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농작물의 시장판매가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영위가 불가능해졌다고 답하였다. 특히 이 응답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도 쌓여 갔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대답하였다.

3.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의 효과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 참여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 특히 우울감을 완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 상황의 악화가 가정 구성원의 심리 상태 악화의 주된 요인임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지원사업에 속해 있는 가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으로부터 얻는 심리적인 위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경제적인 요소, 특히 응답자의 실직 여부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가 달리 측정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 모델을 채택하였다.¹⁰⁾

<표 2>는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갖는 조건부 효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 응답자의 지역개발사업 혹은 아동결연 프로그램(Sponsor) 참여 여부를 각각 더미 변수로 코딩하여 각 사업이 갖는 단독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두 사업의 동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더미 변수를 각각 코딩하여 사용하였다(CDP_Sponsor, CDP_Nonsponsor).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에 실직 여부를 곱하여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1~3에서 볼 수 있듯이,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응답자가 실직상태일 때 우울감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구체적인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한계효과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9]는 모델 3에서 추산된 독립변수의 효과를 Y축에 표현하고 이것이 실직 여부에(X축)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그래프상에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추산된 독립변수의 효과 크기(즉, 우울감 완화 정도)를 나타내며, 위아래 직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는 응답자가 실업 상태일 때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가 실업 상태일 경우,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우울감이 평균 0.8 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 상태일 경우 지역개발사업이나 아동결연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사업으로 인한 심리적 위안을 특히 크게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용상태일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가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케냐와 잠비아의 취약 가정의 많은 가정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의 수입이 유일한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장이 실업 상태가 될 때 많은 가정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 특

10) 각 지원사업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1) 상호작용항의 표준 오차는 상호작용효과와 통계적 유효성을 결정짓는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Brambor, Clark and Golder 2006). 한계효과와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 모델 1-3에서만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히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지 않는 케냐와 잠비아의 경우 가장이 겪는 우울감은 상당할 것이다.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은 케냐와 잠비아에서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실업 상태인 가장은 지역개발사업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다. 또한,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울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울감 결정 요인: 굿네이버스 프로그램과 실직상태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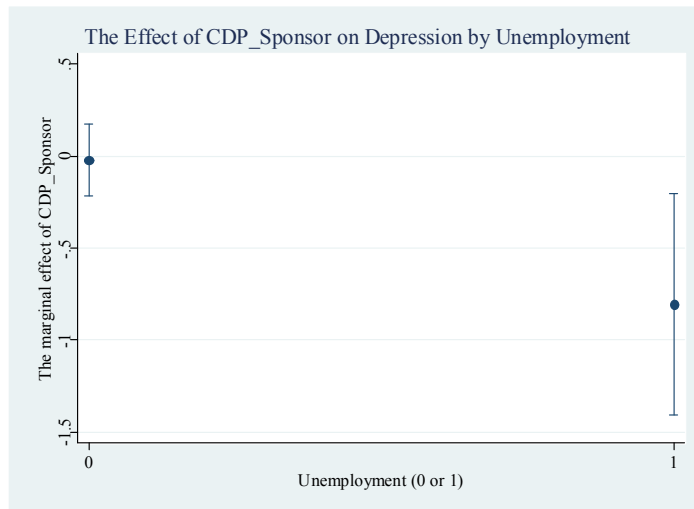
	DV: Depression			
	(1)	(2)	(3)	(4)
CDP	0.113 (0.096)	0.047 (0.093)		
Sponsorship	-0.143 (0.107)	-0.067 (0.111)		
CDP_Sponsor			-0.020 (0.100)	-0.153 (0.097)
CDP_Nonsponsor			0.047 (0.093)	0.026 (0.098)
CDP*Unemployment	-0.717*** (0.275)			
Sponsor*Unemployment		-0.784*** (0.317)		
CDP_Sponsor*Unemployment			-0.784*** (0.317)	
CDP_Nonponsor*Unemployment				-0.291 (0.301)
Incom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1)
Zambia	0.285 (0.214)	0.073 (0.166)	0.073 (0.166)	0.088 (0.177)
Rural	-0.560*** (0.109)	-0.569*** (0.109)	-0.569*** (0.109)	-0.592*** (0.111)
Age	-0.653*** (0.118)	-0.669*** (0.118)	-0.669*** (0.118)	-0.560*** (0.120)

〈표 2〉 우울감 결정 요인: 굿네이버스 프로그램과 실직상태의 상호작용 (연결)

	DV: Depression			
	(1)	(2)	(3)	(4)
Gender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0.004 (0.003)
Married	-0.339*** (0.091)	-0.354*** (0.091)	-0.354*** (0.091)	-0.410*** (0.093)
Education	-0.054 (0.106)	-0.040 (0.106)	-0.040 (0.106)	0.121 (0.108)
Literacy	-0.072** (0.033)	-0.067** (0.033)	-0.067** (0.033)	0.012 (0.034)
Unemployment	0.281*** (0.102)	0.282*** (0.102)	0.282*** (0.102)	0.123 (0.104)
Constant	4.071*** (0.193)	4.092*** (0.192)	4.092*** (0.192)	4.182*** (0.196)
R ²	0.11	0.10	0.10	0.10
N	842	842	842	842

Notes: * p<0.1; ** p<0.05; *** p<0.01

[그림 9]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실직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V. 결 론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는 약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IMF 2021). 이 같은 경제 수축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었고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면, 앞으로의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저소득 국가들이 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백신 접종과 더불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대다수 저소득국가가 백신 수급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확진자의 증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IMF 2021, 128).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격차 또한 위중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는데, 이 역시 저소득국가일수록 심각하였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유엔 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2020)의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평균 학습 결손 일수는 15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우 결손 일수는 69일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 경제적 충격과 교육 시스템의 마비는 저소득국가 취약 계층 가정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침체와 실직, 휴교는 취약 계층의 건강과 영양 섭취의 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마찰과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해당 구성원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잠비아와 케냐의 취약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가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와 저축 등 가정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당 결식 횟수가 1.7회에서 2.9회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실직과 경제 활동의 위축, 가족 구성원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한 우울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가정이 경험하는 이 같은 심리적 어려움은 아동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실직 상황에서 굿네이버스의 지역개발사업 수혜 가정 및 아동결연 프로그램 수혜 가정의 가장들은 비 수혜 가정의 가장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우울감을 보였다. 지역개발사업과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이러한 개발협력사업의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가 주로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수혜 아동의 발달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아동결연 프로그램이 외생적 위기 상황에서 부모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의 연구는 국제아동지원사업의 가장과 아동에 대한 영향을 보다 유기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박이슬. 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가족스트레스, 인지적 대처와 우울 및 가족기능."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영문 자료

- Alhas, A. 2020. "More 'family time' amid coronavirus isolation at home." <https://www.aa.com.tr/en/latest-on-coronavirus-outbreak/more-family-time-amid-coronavirus-isolation-at-home/1812529> (검색일: 2021/10/15).
- Bhatia, Amiya et al. 2020. "COVID-19 response measures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98(9).
-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1), 63-82.
- Dooley, David, Ralph Catalano and Georjeanna Wilson. 1994. "Depression and unemployment: panel findings from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6), 745-765.
- _____, Joann Prause and Kathleen A. Ham-Rowbottom. 2000. "Underemployment and depression: long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4), 421-436.
- Egger, Dennis et al. 2021. "Falling living standards during the COVID-19 crisis: Quantitative evidence from nine developing countries." *Science Advances* 7(6), eabe0997.
- Goolsbee, Austan and Chad Syverson. 2021. "Fear, lockdown, and diversion: Comparing drivers of pandemic economic decline 2020."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3.
- Griffith, Annette K. 2020. "Parental burnout and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1-12.
- Hamel, L. and A. Salganicoff. 2020. "Is There a Widening Gender Gap in Coronavirus Stress?" <https://www.kff.org/policy-watch/is-there-widening-gender-gap-in-coronavirus-stress/> (검색일: 2021/10/15).

- ILO. 2020a. "Protecting Migrant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and Constituent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migrant/documents/publication/wcms_743268.pdf (검색일: 2021/10/15).
- _____. 2020b.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2nd Edition."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briefingnote/wcms_740877.pdf. (검색일: 2021/10/15).
-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4/06/World-Economic-Outlook-April-2021-50308> (검색일: 2021/10/15).
- Jiao, Wen Yan et al. 2020.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221, 264-266.
- Kansiime, Monica K. et al. 2021. "COVID-19 implications on household income and food security in Kenya and Uganda: Findings from a rapid assessment." *World development* 137.
- OECD. 2020. "Evaluating the Initial Impact of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evaluating-the-initial-impact-of-covid-19-containment-measures-on-economic-activity-b1f6b68b/> (검색일: 2021/10/15).
- Roshgadol, Jacob. 2020. "Quarantine Quality Time: 4 In 5 Parents Say Coronavirus Lockdown Has Brought Family Closer Together." <https://www.studyfinds.org/quarantine-quality-time-4-in-5-parents-say-coronavirus-lockdown-has-brought-family-closer-together/> (검색일: 2021/10/15).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and the World Bank. 2020. "Survey on National Education Responses to COVID-19 School Closures." http://tcg.uis.unesco.org/wp-content/uploads/sites/4/2020/10/National-Education-Responses-to-COVID-19-WEB-final_EN.pdf (검색일: 2021/10/15).
- Van Bavel, Jay J. et al.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4(5), 460-471.

Van Eekelen, Willem. 2013. "Revisiting child sponsorship programmes." *Development in Practice* 23(4), 468-480.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10/21).

Abstract

**The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Kenya and Zambia:
Focusing o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nd
Child Sponsorship Program**

Chungshik Moon ■ Chung-Ang University

Sijeong Lim ■ Korea University

Youngwan Kim ■ Sogang University

Hyeran Hong ■ Good Neighbors Global Partnership Center

The COVID-19 pandemic has dramatically decreased the economic growth of most countries. Its negative effects cause the mental health issues of the family member.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and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on unprivileged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role of Good Neighbor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child sponsorship programs. An original survey of 843 households from Good Neighbors programs in Kenya and Zambia along with the results of focus group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were conducted. We find that the overall monthly house income has been decreased by 40%, and the frequency of skipping meals has been increased. Besides, the depression level of the heads of underprivileged households has also increased. However, we show that Good Neighbor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and child sponsorship programs can alleviate the depression of the heads of the households, particularly when they are unemployed.

Key Words: COVID-19, Good Neighbor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Child Sponsorship Program

□ 논문접수일: 2021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25일